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5호 HYUNBULNEWS.COM 2026년 4월 22일(음력 3월 6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D-43’ 6·3지방선거 불자 후보 누가 있나

전국 자치단체 장·의원 선출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 잇따라
공천 갈등 속 불자 후보 ‘눈길’
‘미니 총선’에 청불회장도 거론

여수령 · 신중일 · 임은호 · 하성미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이 선출되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5월 14일 후보자등록 신청을 앞두고 각 당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자 후보들도 출사표를 던지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이승현 조계사 총신도회장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해 관심을 모았다. 이 후보는 당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그는 3월 25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밀실공천에서 대표적인 불자인 주호영 의원과 저를 컷오프한 것은 불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은 대표적인 불자 정치인으로 꼽힌다. 주 의원 역시 당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항고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불도(佛道)’ 부산에서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전재수 후보는 동국대 출신으로 불교계와 인연이 깊다. 지역구(부산 북구갑) 활동 시절부터 사찰 법회에 직접 참여하는 등 스님·신도들과의 유대가 끈끈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모태신앙’을 자처할 정도로 신심 깊은 불자다. 동대부중 재학 시절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는 등 불교를 ‘삶의 철학이자 스승’으로 삼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불자인 추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 국회정각회 고문을 맡고 있는 추 후보는 4월 14일 화성 용주사를 찾아 주지 성효 스님을 예방했다.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용주사를 참배해 온 추 후보는 용주사가 “개혁 정신을 되새기며 힘을 얻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지난해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의 불교본부에서 활동한 바 있다.

우상호 강원지사 예비후보도 더불어민주당 불자회에서 활동한 불자다. 우 후보는 지난 2월 월정사에서 열린 병오년 신년하례법회에도 참석하는 등 지역 불심 잡기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문대림 후보도 청와대불자회 수석부회장 출신의 독실한 불자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최소 10곳 이상에서 ‘미니 총선’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하정우 청와대불자회장(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의 차출 여부가 관심이다.

하정우 수석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 초대 청와대불자회장에 내정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혜우(慧友)’라는 법명을 받았다. 지난 2월 열린 취임법회에서는 “불교계와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고 청불회 활동을 한층 더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취임 소감을 밝힌 바 있다.

하 수석에 앞서 부산 북구갑 출마가 거론됐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월 14일 경기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다. 불자인 조 대표는 4월 8일 대구 동화사를 찾아 주지 선광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선대부터 불자였던 인연을 소개하며 불교계의 관심을 요청했다.



일곱 선사 한국선을 설하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국선원수좌회(상임대표 불산 스님)는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세계 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봉은사 담선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담선대법회는 조계종이 중점 추진하는 ‘선명상’ 대중화의 지향점인 간화선을 널리 알리고 호국불교 전통을 잇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한국불교 역사 속 선지식들의 수행과 전법을 주제로 열려 의미를 더했다. 4월 13일 석종사 조실 금아 혜국 스님이 ‘성철 스님’을 주제로 법을 설한 것을 시작으로 △14일 대흥사 동국선원 유나 남명 정찬 스님(서산 대사) △15일 축서사 조실 금곡 무여 스님(한암 스님) △16일 백양사 수좌 월송 일수 스님(서옹 스님) △17일 범어사 선덕 금산 지환 스님(용성 스님) △18일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금모 불산 스님(향곡 스님) △19일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 봉정 영진 스님(태고 보우 국사)이 차례로 법석에 올랐다. 사진은 4월 15일 열린 법회에서 무여 스님이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는 모습. 〈관련 법문 8·9면〉

글·사진=임은호 기자

서울시의회, 가톨릭대회에 교육예산·시설 동원 추진

박칠성 의원 등 17명 4월 6일
‘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발의
학교시설을 숙박 · 급식에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지원
“학생들에 직 · 간접 선교 효과”
불교계 “강력 대응 나서겠다”

가톨릭 선교 행사인 2027년 제41차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시설과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종교 편향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 제공과 교육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공교육 자원이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훼손과 교육 중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칠성 의원 등 서울시의회 의원 17명은 4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확보·제공하며 교육 협력 프로그램 운영·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대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도 담겼다. 제4조(지원사업)와 제8조(숙박·급식 등 학교시설의 활용 지원)에 따르면 청년대회 운영에 필요한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확보하고, 식수대·화장실·샤워장 등 편의시설까지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사실상 공교육 시설을 숙박 시설로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기준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사용료가 실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공공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육감은 학교장이 세계청년대회 운영에 필요한 학교시설의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 학교시설의 훼손·결함 시 별도의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학교장에게 지급할 수 있어 실제 어느 정도의 교육예산이 투입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원 범위는 시설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조례안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교육 협력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역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심지어 조례안 제5조(세계청년대회 지원 협력)에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협약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부처,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직적으로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발판을 구축한 셈이다. 이는 결국 시민의 세금이 특정 종교행사 지원에 투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공재정의 공익성과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글로벌 교육도시로서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교회가 주관하는 종교행사로, 특정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심리적 위축감이나 소외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향문 스님은 “세계청년대회는 명칭과 달리 사실상 각국 가톨릭 신자들이 참여하는 종교행사”라며 “이 같은 행사에 학교시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과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적인 강요가 없더라도 학생들이 특정 종교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며 간접적인 선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발의된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종교 편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조례를 통해 유사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하는 편파 지원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보화 스님은 “세계청년대회는 교황 방문과 미사 등 종교 의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학교시설이 숙박 및 운영 공간으로 활용되고 관련 프로그램이 연계될 경우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종교행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추진이 난항을 겪자 우회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것 같다”며 “종교편향특위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부도 “종교행사에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처럼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문제”라는 데 공감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서울시의회에 폐기 의견을 제출하고 항의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은호 · 김내영 기자

〈관련기사 5면〉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교통약자 대상 국립공원 명소 차량 이동 서비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주요 명소 방문을 위한
차량 이동 서비스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영기간 2026. 4. 30.(목) ~ 11. 22.(일)
※추첨제 모집기간 : 2026. 4. 17.(금) ~ 4. 26.(일) / 10일간
추첨제 종료 후 잔여분은 선착순 접수로 운영(이용일 5일 전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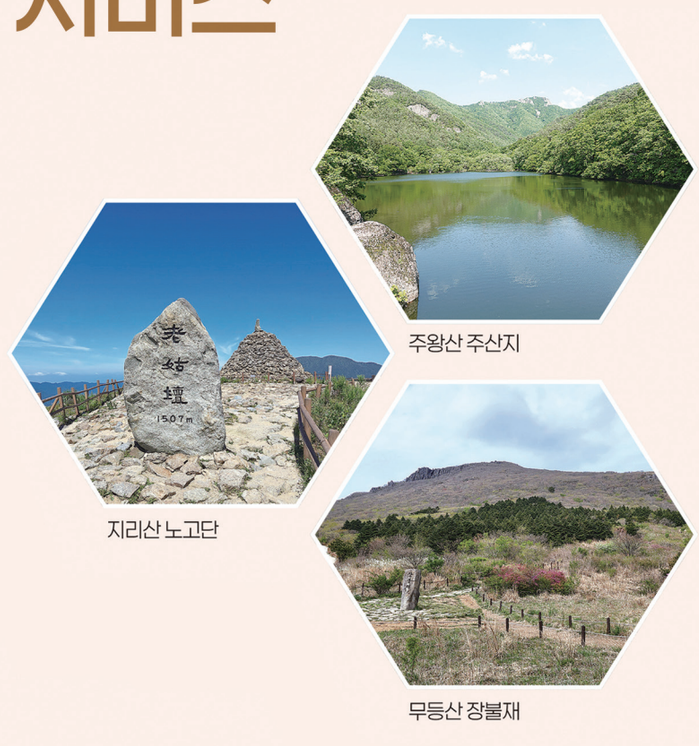
- 운영대상 교통약자 및 동반가족
※교통약자 : 장애인 · 임신부 · 만 5세 이하 영유아(‘20년 이후 출생)
· 만 70세 이상 고령자(‘56년 이전 출생)

- 운영장소 14개 명소(북한산·지리산 등 11개 국립공원)

- 신청방법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으로 신청
(http://reservation.knps.or.kr)

- 문 의 1670-9201 (국립공원공단 고객센터)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주왕산 주산지
지리산 노고단
무등산 장불재